

한 나라의 충신이 죽으면 그 분에 대한 뒷이야기가 남듯이 여기에 적으려는 이정렬씨 또한 누구 못지 않은 우리나라의 충신이었으며, 우리 나라의 큰 인물이었다. 좀 더 일찍 태어나 그분을 뵈지 못한 것을 한하며 이야기로서 들은 것들은 미숙한 글로나마 적어 보려 한다.

이정렬 선생은 예안이씨로 호는 퇴호, 서기 1865~1949년의 시대인이며 출생지는 충남 아산군 송악면 외암리이다. 선생은 부지런하고 강직 하시기 때문에 많은 요직을 거치시게 되었는데 끝내는 그 벼슬이 참판에까지 이르시게 되었다. 선생은 판서직이었으나 왜놈당시 직이라 하여 그전에 벼슬인 참판으로 강등하여 행세했고 또 단발령과 을사조약 등이 마음에 맞지 안하여 상소문을 수차 임금께 전하였으나 아무 소용이 없어 퇴직하시고 일제의 침략이 날로 우리 강토에 깊이 뿌리를 받고 온 천하에 못된 것 만을 행하고 또한 우리나라 정치가 날로 어지러워 감히 분노를 참지 못한 나머지 개탄하시어 조정에 입관시에 말을 거꾸로 타 시고 낮에 등부를 밝혀 들고 "우리나라 조정은 어찌하여 이다지도 어두우냐?"고 하시며 임금님 안전에서 바른 말을 하시며

"차라리 3살 먹은 어린애 죽는 꼴은 볼지언정 나라 망하는 꼴은 차마 못보겠다." 하시면서 벼슬에서 사직을 하시고 고향으로 낙향을 하셨다. 한나라의 백성된 도리로서 나라일을 걱정하는 일은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만약 간신이었다라면 정세야 어찌 됐든 듣기 좋은 말로 임금의 환심을 사려했을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충신의 진정한 용기와 의를 볼 수 있을 것이다. 고향에 돌아온 그는 낮에는 산과 들에 나가 나무도 하고 약뿌리를 캐면서, 전답을 보살피면서 농사일에 임하고 야간으로는 정사계책을 쉬지 않고 고심하면서 왜놈을 물리칠 고심 연구 끝에 본가에서 십여리 떨어진 부지에 "철은사"라는 조그마한 암자를 건립하고 각처에서 충의의 뜻이 있는 동지 일곱 사람을 모아 총사가 되어 한달에 일회씩 모임을 갖고 국사를 의논하는 일에 노심초사하며 게으름이 없으셨으며 특히나 왜놈을 해인(海人)이라 즉 미천한 물고기라하여 왜놈을 비유하여 낚시질하러 가자는 것으로 아주 열시하고 종멸하는 말로써 신호와 비밀 암호로서 통용되었고 사람을 고기로 보았다는 것이 아주 이색적이라 할 만치 예나 이제나 변함없는 왜놈들의 인간담지 않은 행동, 우리에게 대한 잔인한 행위를 증오에 찬 말로 표현한 것은 우리도 일본인들을 다시 생각게 하는 역사적인 현실이라 본다. 날로 심각해 가는 일본의 침략을 비분강개한 나머지 식사를 수일 전폐하시기도 하고 말로 형용 못할 만큼 걱정을 하며 국모를 살해한 철천지 원수를 갚을 길을 의논하고 때로는 왕에게 무려 30여통에 달하는 상소문을 올렸으나 아무 소용이 없어 왕 면전에 나가 얼굴을 맞대고 죽기를 한하고 1시간 정도나 직언을 연하니 왕이 노하여 극형에 처하라는 명이 이르렀는데 여러 대신들과 충신이 간하는 바에 의하여 간신히 극형을 모면했으며 당나라의 이선감이와 같다고 연상일이나 신문에 게재 되었다. 또는 독립투사에게 약간의 군자금을 조달하며 지원하기도 하고 각처의 애국지사에게 상황의 실태를 통문으로 돌려 그들의 애국심에 부채질도 하였고 진퇴에 유익한 정보연락을 취하여 주었다. 그러다가 어느날 일본헌병이 몰래 마루 밑에 숨어 들어 발각된 후로는 요시찰인이라 낙인이 찍혀 일본헌병이 매일 집에 와서 감시하여 모든 일이 뜻대로 되질 않았다. 그리고 일단 유사시에 쓰려고 장만해 놓았던 장검과 총검 단도가 그대로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고 있다. 일본헌병의 감시아래 집안에 감금 되어서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하고 한가한 생활을 하면서도 그들의 회유정책을 끝까지 물리치셨다. 그러던 중 고종이 친서로 수차 입궐하라는 서찰을 보냈으나 입궐하지 않고 상소문만으로 정사에 대하여 본인의 뜻과 의사를 표시할 따름이었다. 왕은 강직한 충신의 말을 받아 들이지 못했음을 후회하며 원명 '이충정'을 곧고 맵다는 '정렬'로 바꾸라는 명을 내려 이름을 '이정렬'로 바꾸게 되었다. 이같이 충의심이 강한 그는 일찌기 고종으로부터 가옥 한채와(4동 80평의 큰 고택, 현존) 은잔 네개와 관복 일구 또 관복감 일구 "일심사군 퇴호거사"라는 호를 하사받았고 만년에는 후배양성에 힘을 모아 많은 현인을 배출해 냈다. 제자들로서 현재 칠십~팔십이 넘는 분들이 생존해 있다. 노소 합하여 차례를 올린다. 또 철은사 사당위장을 모신데는 일년에 일회씩 칠일자손들이 모여서 차례를 지낸다. 독서에는 부지런하고 일신의 영화에는 검소하며 "육경책을 통하여 베풀어 토대로 삼으라. 또 선한 것을 들려주고 악한 것을 감추어 주고 손님한테 도리를 잘 할지어다. 이것이 자손세대에 달는 업이다."하시며 "세 번을 생각하고 한 가지 일을 하고 종결을 맺어 놓고 후회를 하지 말라. 자신만만하게 해낼 일이라도 백 번을 참으라." 하였고 "타인의 물건은 텃검불이라도 소중히 여기고 은혜를 베풀거든 생각지를 말고 만사에 욕심을 버리고 학문에만 욕심을 가지라" 하셨다. 배우는 우리들에게는 좋은 교훈이 아닐 수 없다. 관직은 34세 때에 조정으로부터 퇴조하여 여생을 우국과 후진양성에만 이바지 하시다가 83세에 졸하셨다. 저서에는 「퇴조 유호」 문헌에는 「고종실록」 「국조인물록」 「정원일기」 편이 있다. 한 나라의 충신으로서 조국을 위해 자기의 부귀영화를 저버리고 녹을 먹는 자리에서 백성을 위해 살았다면 우리는 그를 우러러 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지금도 생각해 본다.

만약 그분이 정계에서 활동했더라면 왜놈들의 정복을 면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고 말이다.